

음녀, 바빌론은 멸망한다.(계18:1~8)

요한계시록 18:1~8 「1]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2]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3]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6]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 7]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8]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아마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떠나는 그러한 일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소위 성모 마리아, 승천일을 기념해서 미사를 가졌는데 그 경기장에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124명을, 성인 바로 밑에 복자 라고 불리는 어떤 그러한 그룹들을, 시복식을 한다.

교황이 와서 복 있는 자 라고 호칭을 붙여주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할 때 광화문 광장에 지금 보도 되기로는 100만 인파가 몰렸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 그들이 미사를 들이기 위해서 세워 놓은 이와 같은 구조물만 딱 봐도 이것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단체이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 ankh 십자가, 이집트의 ankh 십자가를 딱 달아놓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가운데에다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세워 놓고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무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특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많은 순진한 그런 무리들이 교황이 무엇인가, 영적인 좋은 것을 유포피아를 건설해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저렇게 많아 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상당히 암울하다 하고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앵크십자가는 고대시대부터 사용되어져 왔으며, T 십자가는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의 'T'를 의미하며 T 위의 둥근 모양이 상징하는 것은 지평선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바빌론의 태양숭배사상이며 생명과 불멸을 의미하고,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는 남자의 생식기이라고 합니다. 앵크십자가는 사탄의 상징으로 사탄주의자들이 사용해 왔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루셨던 구원의 사역에 대항하여 사탄주의자들이 그들 스스로 이겼다고 착각하며 자주 사용하며, 록 가수들도 자주 사용합니다.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앵크십자가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나니” –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막 비틀거리고 그 무언가에 취해있는 것 같은 데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요. –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어야 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무언가 취해서 몽롱한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내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같이 되었나니” –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런 대언의 말씀들이 완전히 봉인돼서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 성경책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닫혀져 있으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절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 이 성경책, 이 대언의 말씀을 -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나는 무식해서 여기 있는 말씀이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 하는 도다.” 이 나라의 교회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준 전통과 목사가 교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훈계와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고 분별 있는 자가 왜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는 그런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올바로 발전하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러한 교황 방문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가?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분별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가서서 ‘평화의 사도 교황 프란치스코의 전쟁 선전 포고’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치시며 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영상이 이제 뜨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스페인의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 프란치스코 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 되기 전에 답변했던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근본주의 그룹 다시 말해 성경대로 믿는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지만 그것은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지금 평화를 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지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 여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근본주의 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본주의자라고 칭하는 그러한 그룹, 미국 내 그런 그룹들이 어떤 것을 믿느냐?

첫째,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는 거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근본주의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시요, 참 사람이리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과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교황이 이야기 하

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근본주의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거 믿는 사람이 근본주의자 이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근본주의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하셔서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거 근본주의자 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마지막 끝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믿는 이런 사람이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향해서 전쟁, 선전포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역시 교황이 되기 전에 BBC, 영국 BBC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라는 그러한 forum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이 한 무리 모여있고, 거기에 한 흑인 목사가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 모두가 휴거가 되고 부활된다.**”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흑인 목사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어요.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뛰쳐나오지요. 그 사람이 바로, 추기경 시절에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재림은 근본주의자들이 행하는 성경해석으로 계시록의 시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금 교황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어요.

‘바울은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이 곧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천 년, 이 천년 뒤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어라고 얘기하느냐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초대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잘못 믿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 하느냐? ‘아니 그 신약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이제 성경비평학과 현대성경이해에 따라 달리 재 해석 돼야 됩니다.’ 재 해석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적 성경해석 방법은 그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소위 로마 가톨릭교회 수억 명이, 믿는 그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BBC 방송에서 이야기 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보존 전혀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천주교회가 맞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나라의 영적인 기상도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는 성경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근본주의 성경신자들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어요. 실질적으로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이 되자마자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지금 이름이 프란체스코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름이 프란체스코 교황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뭐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지은 천주교의 성인 입니다. 이번에 시복식을 할 때 백건우씨라고 하는 그런 Pianist가 List(Franz List)라고 하는 그러

한 유명한 음악가가 어떠한 곡을 썼나 하면 ‘새들에게 설교하는 아씨의 성자 프란체스코’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어요. 새한테 가서 설교하고, 나무한테 가서 설교하고, 이게 가톨릭의 성인이에요. 가톨릭의 성인, 이 사람이 평화의 기도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좋은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이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이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이 기쁨을.’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 거예요. 맨 끝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이게 가톨릭교회의 믿음 이어요. 자기를 불에 태우도록 살라내 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가톨릭교회 믿음이어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교황 프란체스코다.

저와 여러분이 골백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 얻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줬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성경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2001년 4월 27일에 ‘도올의 논어 이야기’ 58장 중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거기 나와서 무어라고 이야기 하느냐?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천주교의 믿음이어요. 우리나라 천주교 수장이 공식적인 방송에 나와서 불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그냥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각서 보니까 무어라 기록이 돼있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연 이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 구원 받는 것이 -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 뭔가 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온다면 -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말세에 마지막 부분을 살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천주교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 방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황과 천주교는 절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저 밖에 나가서는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는데 홀로 영광을 받는 저와 같은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우리 예수님이 무어라고 말씀하셨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 잘 보세요. 긴 옷을 종교적인 색체에 -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인사 받는 것과 -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 - 를 차지하는 것 -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 교황과 종교지도자들이 행하

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거든요. - “그들이” - 실질적으로는 -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바가 한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황과 천주교의 그 음녀세력과 종교 통합세력, 성경변개자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과 거짓 대언자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에 따라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마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들을 돕는 거짓 대언자의 운명이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20장 10절 가서 보니까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 -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던 이 - “거짓 대언자” -와 함께 거기 - “있는 곳에 던져져서” - 어떻게 해요? -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겠다.” - 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모든 자들의 운명이 이미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즉 -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 호수에 던져졌다.” - 이미 던져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받게 될 그와 같은 운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창궐(猖獗)한다 해도 우리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더니 우리, 프란체스카보다 10살이나 연세가 더 많으신 우리 허덕준 어르신께서, 저를 저에게 다가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아, 저자들이 뭘 하던지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뭘니까?’ 지금 우리 허덕준 어르신 여든 다섯 살 되신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얘기 하는 거예요. ‘프란체스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하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좀 차갑든지 해야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우리 어르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를 내가 좀 결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창궐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 질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요. 지금 이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음녀, 바빌론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세상에 창조 이후부터 내려오는 마귀의 바빌론 음녀체제 그 실상과 이 음녀체제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읽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시록은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기만 해도 복이 되는 책이어요. 그런데 왜 계시록 읽는 것을 주저하느냐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가서 보면 좀 이상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또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가장 크게 복을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시들 봉인되어있던 계시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 주시

니까 지금 이 시대 와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 시대가 돼 가니까 요한계시록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구나. 우리가 환히 열린 이와 같은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 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전체적인 성경구조가 어떻게 돼있는 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가? 왜 교황의 세력과 그 다음에 종교통합 세력이 지금 이 시대 맨 마지막 시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저 이슬람 세력이 저렇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고통과 고난,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해야, 다시 말씀 드려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 해야 저와 여러분이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이 중요한 topic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모든 고통과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마귀 때문에 이루어 지는 거예요.

마귀의 반란이 애초에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마귀 사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임하고,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마귀 사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 성경이 이런 구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온 우주공간 사람과 모든 창조물이 생겨나기 훨씬 전에 과거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공존하면서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공존하면서 어느 때에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런 그런 존재 이름이 Lucifer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Lucifer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존재는 에스겔서 28장에는 덮는 그룹으로 표현이 돼있어요. 그룹(Cherub), 하나님의 그 영적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러한 창조물, 그 중의 하나가 그룹이어요. 그 그룹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날개로 덮는 이와 같은 그룹. 영광 중의 영광을 차지하던 그와 같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의 이름이 Lucifer 입니다. 이 Lucifer가 너무 많은 영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마음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요. 이 창조된 존재가 나를 창조한 저 창조자보다 내가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상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높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처럼 내가 돼 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늘에 만들어 놓은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삼분의 일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셋째 하늘에, 이 땅과 우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ucifer가 타락하면서 ‘대적하는 자’ 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Satan)으로 불리게 됐어요. 사탄.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Lucifer를 금방, 섬멸시키고 금방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뭐 손가락 하나만 대면 창조물인데 금방 멸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에 앞으로 이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와 같은 걸 그냥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즉각, 즉각 이렇게 파멸시키면 이 셋째 하늘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 하시기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 창조물이 창조자를 대적해서 반역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육천 년 전에, 육천 년 전에, 이 우주 공간과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면서 그 이후로 지난 한 육천 년 동안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

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의 뛰어난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일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쭉~ 되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 창조주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사람에게서는 한 육천 년 정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천 년이 하나님께서는 하루와 같아요. 그래 지금 한 육 일 정도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한 육일 정도 지난 겁니다. 이 육일 정도 지나면서 시간이 곧 마무리가 되고, 이 땅에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쳐놓은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이룩하시고 그 이후에 이 시간을 마무리 하시면서 시간, 7일이 되는 이런 시간,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영원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이 넓게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개념으로 넓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며 는, 영원 전 과거가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영원한 그런 미래가 있어요. 이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에요. 이 무한대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6일이라고 하는, 7일 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마귀와 그의 모든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내게 대적하는 일을 한번 해 보라! 하고 지금 허용을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그 허용 때문이 지금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전쟁이 존재하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게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류구원 계획, 우리 사람에게서는 인류구원 계획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창조자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 안에 사람의 구원이 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의 구원.

그렇게 여러분이 큰 scale로 성경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게 되니까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계획을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 들과 결합하며 hybrid 거인 종족을 만들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씨, 메시아가 오는 것을 봉괴시키려 하는 그와 같은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다는 이런 계획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계략을 꾸밀 때 하나님께서 Noah와 그의 여덟 사람을 구출해 내셔서 그 여덟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 한번 해 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한번 해 보라.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망쳐 놓은 그와 같은 왕국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사용해서서 왕국을 세우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서 그 가운데 누가 나와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이집트에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파라오가 행하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또 계략을 짜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들을 구출 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니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피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그와 같은 술수를 다 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

존 하시고, 보존하시고, 보존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구약성경에 기록이 돼있는 겁니다.

Noah의 홍수 이후에 특별히 Nimrod이라고 하는 반역자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인도하는, One world government 그래서 한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내려 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경, 열왕기상하를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메시아 출현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Athaliah라는 그런 여인을 왕비로 세우고 이 Athaliah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씨를 멸절하기 위해서 몽땅 다 다윗의 씨를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숨겨 놓으세요? 이 조그만 아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성전에, 그 안에 보존해 주셔서 요아스를 통해서 메시아 씨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니까 또 누구를 사용해요?

헤롯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귀가 시도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들어 가게 될 때 이번에는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 하지만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결국 가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만들므로 씨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작용하게 될 때 죽어있던 무덤에 묻혀있던 우리 예수님께서 번쩍 일어 나시는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계략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교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겠거니 하고 황제들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AD 313년에 Constantine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교도 황제를 동원해서 소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기독교가 온 로마 제국에 공식적인 종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이 그저 와서 세례 받으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교도들이 요청한 것이 있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물려받은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예배의식이 우리가 있는데 이걸 허락해 줘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는 마리아로, 그 아기 Tammuz는 아기 예수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 그 다음에 아기는 예수가 되는 이와 같은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체제, 로마 가톨릭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체제를 마귀가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AD 한 600년경이 시작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을 로마의 교황, 로마에 있는 이 주교, 교황이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암흑 속으로 집어넣고, 무지 속으로 집어 넣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로마 가톨릭체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체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배 동안에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오천만 명에서 일억 명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이와 같은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가톨릭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음녀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쪽~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한번 나를, 대적해 봐라! 라고 하고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간이 7년 환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7년 환난기 되기 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의 신부는 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 가고, 불신 세상에, 마귀가 주도하는 이 불신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대신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도로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7년 동안 생기게 됩니다. 이 7년, 이 7년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된 대로 음녀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7년 환난기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립하시면서 아담이 망쳐놓은 그 왕국, 그 왕국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렇게 된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앞으로 다가 올 영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전체적이 그런 구조여요.

그래서 시간이 생긴 이후로 지나 한 육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와 같은 갈등의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여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요. 성경이 이야기 하는 것은 창조물이 무슨 수를 써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 보여 주는 게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모든 게 끝나게 돼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창조물들이 한 가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저 Lucifer도,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한번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는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영원 무궁토록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여요.

그러니까 자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머리를 이 땅에 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왜 이렇게 고통이 있나? 왜 이렇게 아픔이 있나? 전쟁이 있나? 저 이스라엘은 뭐고? 이슬람은 뭐고? 교황은 저것은 뭐고? 왜 이런 일,’ 우리는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scale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런 scale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 나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여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반드시 멸망 당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면,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낙원이 회복이 돼요.

창세기 가서 보면 생명나무를 잃어버려요. 접근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가니까 생명 나무에 접근해서 생명 나무 실과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반역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의 반역이 계시록에서는 끝이 납니다.

살인이 생기고 미워하고 고통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계시록)창세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계시록 21장 27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 이 모든 게 완전히 끝이 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괴롭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계시록에 가니까 더 이상 사람이 죽는 일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특히 남자들이 죽도록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저주를 받고 그게 다 창세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한 계시록 맨 끝에 가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되면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유혹했지만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불 호수 속에 떨어져서 최후를 맞는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됐지만 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니까 변개 하는 자, 말씀을 변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을 때 마귀가 개입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사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복귀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므로 써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므로 서 다가오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갈등이 지난 육천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 왔어요.

자, 이 갈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갈등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사이에 갈등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Noah의 홍수 이후에 Nimrod을 중심으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겼습니다.

이 세력을 성경은 바빌론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종교가 바빌론 종교, 그 바빌론 종교의 특징은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거요. 마리아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예수님은 요만하게 젖만 쪽쪽 빠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아무 것도 못해요.

다 누가 해야 돼요? 마리아가 하는 이와 같은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런 종교를 Semiramis와 Nimrod 이라고 하는 이 Nimrod,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Tammuz라고 하는 이 삼총사가 이 바빌론 바벨 탑에서 이와 같은 종교체제를 만들게 됐어요. 또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을 성경은 바빌론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바빌론 세력.

그래서 구약성경의 역사는 이 바빌론 세력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바빌론 세력이어요.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 갑니다. 이번에는 결혼을 통해서, 잡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마귀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일환 중의 하나가 브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때 이 브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괴롭히면 메시아 씨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는데 그 잡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알과 아스다롯 입니다. 거기에 또 아기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아기 신의 이름이 Tammuz여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 아스다롯이 곧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리아여요. Tammuz를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는 그런 내용이 심지어 예레미야서 에도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신약이 되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교회

를 대적하는 바빌론 세력이 또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구약과 달리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바빌론 세력 그 주변에 있는 세력이 바빌론 세력이어요. 그런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세력을 성경은 바빌론 음녀 세력이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Constantine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교도들의 이 바빌론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 오면서, 소위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둔갑이 되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섬기는 이 바빌론 음녀 종교 체제가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천주교회 그 마리아 숭배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마리아의 공식 호칭이 하늘의 왕비, 영어로 Queen of Heaven 이어요. 또 공식 호칭이 뭐냐? 하나님의 어머니 여요. 하나님의 어머니. Mother of God 이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공식 호칭이어요. 이번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무슨 날 미사를 드렸어요. 성모 승천, 마리아가 승천 했다는 거요. 마리아가. 그게 언제 교리로 확정이 됐냐? 1950년 11월 1일에 교화 비오 12세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어마 지나지 않으면 마리아 재림한다는 교리가 이제 또 생겨 날 거예요. 이게 천주교회가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AD 600년이 지나면서 천주교회는 세력을 확장하며 세상의 정권을 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세의 약 천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누르고 교황이 그 위에 있으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회가 되면 인간의 자유가 말살이 돼요. 양심이 짓눌립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교황들의 이 축재(蓄財)와 그 다음에 축첩(蓄妾)으로 이해서 그 당시에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Martin Luther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1517년에 그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 말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입니다. 뭐요? 마귀에게 짓눌려 살면서 양심의 자유를 억눌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기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Martin Luther 종교개혁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그런 일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 나니까 거의 몰락해 가던 이 로마 가톨릭교회를 구출한 그런 세력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그 세력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번 교황이 속한 데가 예수회예요. Ignatius Loyola라고 하는 사람이, 외경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을 구약성경, 외경 인정해요. 또 교황의 수위권(首位權: 교황이 가톨릭 교회에서 으뜸가는 권한을 지닌다는 뜻)을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으로 온 세상을 장악해야 되겠다. 해서 가톨릭 시스템의 그 교육제도를 가지고 온 세상에 이 Jesuit 이 예수회가 파고 들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교육, 중요한 데는 이 예수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특히 신학교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가톨릭교회의 부흥이 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그 전까지는 절대로 가톨릭교회가 이 Protestant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지나가면서 제2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여 우리 같이 종교 통합하자!’ 라고 하면서 세상의 끝 부분이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체제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돌아 다니면서 ‘우리가 다 같이, 다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 같이 종교 놀이 하자!’ 하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적그리스도. 그렇지만 성경 그대로 가서 보시면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돕는 바빌론 세력의 핵심 수장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황이다. 성경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말 그대로 교회의 전성기가 다가 오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다시 한번 부흥기가 다가오게 되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 눈 앞에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가서, 이 성경 말씀이 이 음녀 체제에 대해서 무어라고 이야기 하는 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가서 보니까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물들이 도대체 뭘까?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성경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그 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 여러분 쉬어요? 어려워요? 다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음녀가 어디 앉아 있다는 거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어떤 음녀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지금 얘기 하는 겁니다.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 이 바빌론 음녀 세력과 땅의 모든 왕들이 음행하고 –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서” – 정신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 짐승이 앞뒤로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치켜주면서 여자보고 내 등에 타라고 해서 온 세상,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치켜세우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여자 어떤 일 하는 여자냐? –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였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 이 종교체제인데 이 종교체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숭상을 받고 그렇지요? 각종 빨강색, 자주색 이런 것 들로 치장을 하면서 이 온 세상을 부패시키는 그러한 종교 체제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그 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 무어라고 기록 돼요? 신비라, Mystery 라는 거요. “야! 저게 정말 저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교회 한번 보세요. ‘저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눈 뜨고도 저걸 못 보나?’ 그렇지요. 이 신비요. Mystery, 사람들이 Mystery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 “큰 바빌론이라,” – 바벨탑에서 시작되었던 그 바빌론 그거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그 바빌론 이다. 얘기 하는 것입니다. –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 6절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 는 거요. 이 교회시대 동안에 또 과거에도 이 바빌론 세력이 성도들을 죽이고 순교자들을 많이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자가 한 여자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여자를 짐승이 자기 등위에 태우고는, 짐승은 정치세력 이어요. 온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려는 이런 세력이 종교세력을 등에 업고 는, 그래서 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7년 대환난기에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쪽~ 얘기 하면서 9절에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 아, 그 여자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거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18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 도시라는 거요. 일곱 개 산이 있는 저 큰 도시가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인가 여러분 추측이 되세요? 어디예요?

로마요, 로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 음녀를 로마 가톨릭 아니면 저기 있는 로마로 본 거요. 여기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나? 12절에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했다.” – 자, 그래서 이 짐승과 함께,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열 왕이 일어나서 이 모든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데 이제 이세상의 맨 끝이 되면 드디어 모든 게 하나로 다 통일이 됩니다. 이러면 더 이상 음녀가 필요치 않잖아요. 종교세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하면 더 이상 종교가 필요치 않은 것이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한번 16절 가서 보세요. “내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 – 이제 종교체제 이제 필요 없다는 거요. –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는” – 그런 일이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종교세력이 필요치 않는 그런 세대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1인 독재체제를 만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생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18장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 그렇게 사람들 속이고 성도들을 죽이던 – “저 큰 바빌론이” – 드디어 – “무너졌다.” – 는 거요. 언제 무너져요? 여기 1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뭐가 무너져요? 바빌론 음녀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세력이 바벨탑에서 바빌론 세력이 된 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멸절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왕국이 이루어 지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7년 환난기 맨 끝부분에 가서 마귀의 이 바빌론 음녀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해주시고 나서 놀라운 말씀이 4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차적으로 환난기에 들어 있는 그런 성도들 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 같이 말씀 하세요.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하세요. 거기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음녀가 받을 재앙들과 저주를 내가 받는다.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지금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 같으니 종교통합하자 그러고, 성경 부패되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고, 또 제사장 체제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8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창세기 시작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바빌론 세력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바로 그 시점, 바로 전에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 드리겠습니다.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마리아를 구원자라고 이야기 하고, 사람이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성경을 번개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교황이 뜨고, 천주교가 뜨냐? 이들의 전성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성기예요. 전성기 끝 부분에 우리는 하늘로 휴거 돼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있는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활기를 가지고 전성기를 맞이 한다 해도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신 하면서 먼저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대로 행해야 돼요. 근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면 거기 있는 사람들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구해내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구해내야 돼요. 지금 100만 명이 교황을 찬양하러 간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 입니다.

특히 우리 국가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본분임을 기억 하시고 이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멘.